

# 그림자놀이

송경아  
소설가

**“나와 동생은 어느새 커다란 새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다. 아빠가 붙잡으려 했지만 새는 날갯짓 한번으로 아빠를 날려버렸다. 엄마가 울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새의 목 깃털을 하나 뽑았다. 반짝이는 은빛 깃털이 낮익었다.”**

“오빠, 그러면 안돼…….”  
동생이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톱밥이 가득찬 수조에 손을 집어넣어 파닥거리는 작은 것을 쥐었다. 눈물이 그렇듯 고인 눈으로 동생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오빠, 하지 마. 짜야가 아파해.”  
“상관 없어.”  
“아니, 아파해야 해.”  
나는 마음 속으로 그렇게 덧붙였다. 동생은 이해하지 못한다. 매일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동생은 자신이 왜 아파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동생은 바보다. 바보는 자기 몸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똑똑한 내가 지켜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나는 왼손 손바닥 위에 햄스터를 올려놓았다. 오른손에는 잘 갈아진 과도를 쥐고 있었다. 햄스터는 잠시 어쩔 줄을 모르고 까만 눈을 두리번거렸다. 바보같은 놈. 하지만 내가 해치워야 할 그 놈은 이렇게 바보같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살그머니 햄스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햄스터는 뜻밖에 주어진 자유를 맞아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오른손의 과도로 햄스터를 내리찍었다.

찌이익익—  
숨을 찢어놓을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칼날이 이렇게 잘 들 줄은 나도 몰랐다. 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된 채 반동강이 난 햄스터와 피범벅이 된 과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동생은 울음도 터뜨리지 못했다. 바보같이. 말 못하고 당하는 자는 모두 바보다. 그러니까 햄스터도 바보고, 동생도 바보고, 엄마도 바보고, 나도 바보다. 하지만 난 언제까지나 바보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너, 이거 누구한테든지 말하면 가만 안둬. 알았지?”

대답 대신 동생은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상관없다. 어차피 동생이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엄마 아빠가 알면 안된다고 동생을 구슬러, 햄스터를 키우는 것은 비밀로 해 놓았었다. 엄마 아빠가 알면 햄스터가 쫓겨날 거라는 말을 듣고 동생은 아무에게도 우리가 햄스터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휴지와 걸레를 들고 왔다. 휴지로 햄스터의 시체를 들들 말고, 걸레로 핏자국을 닦았다. 바닥은 금방 깨끗해졌다. 하지만 그때까지 동생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너, 그만 해. 그만 울어. 안 그러면 아빠처럼 널 아프게 해줄 테야.”

그 말에 동생은 기겁을 해서 울음을 그쳤다. 한꺼번에 딱 그치지는 못했지만, 엉엉 울던 목소리가 훌쩍거리면서 잦아들었고, 조금 있으면 눈물이 마를 것 같았다. 아빠는 뭔지, 내가 모를 방법으로 동생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내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걸 동생은 모른다.

처음 아빠가 동생을 아프게 했을 때, 나는 울며불며 엄마한테 매달렸다. 아빠가 동생 죽인다고, 살려달라고. 그 정도로 동생의 비명은 격렬했고, 마음을 찢는 곳이 있었다. 아빠는 엄마도 많이 때렸지만, 엄마는 저런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엄마가 맞을 때는 숨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동생은 달랐다. 노래를 잘 부르는 동생의 소프라노가 이렇게 듣기 싫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나를 꼭 끌어안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어버렸으면 싶었다. 그러면 저 소리를 안 들어도 좋을 텐데. 그날 밤, 내 옆자리로 돌아온 동생은 아침까지 킁킁거리고 울었다.

어렸을 때, 정전이 되면 엄마는 우리들에게 그림자 놀이를 가르쳐 주었다. 촛불을 켜 놓고 손 움직임을 조금씩만 바꾸면 그림자는 개가 되고, 뱀사공이 되고, 새가 되었다. 나와 동생은 그 그림자들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곤 했다. 어렸을 때는,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그림자가 사나운 개로 변하면 우리는 무서워서 달달 떨어졌고, 뱀사공이 되면 우리가 같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것 같았다. 지금 동생과 나에게 필요한 그림자는

새 그림자일 것이다. 우리는 날아가야 한다. 매일 엄마를 때리고 동생을 괴롭히는 아빠와, 그걸 보고도 아무 것도 못하는 엄마를 넘어서 훨훨 날아가는 새. 커다란 새라면 좋겠다. 나와 동생은 어느새 커다란 새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다. 아빠가 붙잡으려 했지만 새는 날갯짓 한번으로 아빠를 날려버렸다. 엄마가 울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새의 목 깃털을 하나 뽑았다. 반짝이는 은빛 깃털이 낮익었다.

“날 다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깃털을 들고 나를 불러.”

새가 속삭였다. 나는 그 깃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방금 전에 갈아온, 날이 햇빛에 빛나는 과일 칼이다. 동생은 아직도 훌쩍거리고 있다. 나는 동생의 어깨를 다독거린다.

“울지 마. 오늘 밤에 우리, 새 타고 날아가자.”

“새를 타고 날아가?”

“그럼. 아빠 없는 곳으로, 새 타고 날아가는 거야.”

동생은 눈을 반짝거리며 나를 쳐다본다. 나는 손에 든 과도를 다시 한번 움켜잡는다. 그 순간, 나의 그림자는 커다란 새의 모습이다. ◆